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7년 8월 22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보여주신 전략적 계시를 믿습니다. 그것을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양하는 길’ 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백 투 예루살렘’ 이라고도 하지요. 이것은 극동과 아시아 지역의 영계 자매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에, 시대의 제한 없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막 16:15) 그러나 또한 세기를 거쳐 이어지는 어떤 방위적 계획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물결’은 일반적으로 서쪽으로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을 때, 그들은 동쪽을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는 서쪽을 향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 왕국은 여오야긴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스룹 바벨 때로부터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인류에게 주어진 성경적 소망을 상징합니다.]

예슈아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 1:8) 복음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사울은 시리아와 터키를 향해 북쪽으로 여행했고, 아시아를 향해 동쪽으로 이동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계획을 막으셨지요. (행 16:6~7) 대신 성령께서는 그를 그리스(행 16:9~10)로, 후에는 로마(행 23:11)로 인도하셨습니다.

수년 후 복음은 유럽 전역을 관통하여 서진했고, 결국 남북 아메리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

니다. 부흥은 18세기 미국 동해안에서 시작되어 20세기로 접어들며 서해안에 오순절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서 복음은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향했고, 특별히 1900년대 말에 이르러 남안 땅에 상륙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은 인도와, 아프리카, 중국 등지에서 기적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등글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복음은 결국 그 시작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겠지요. 이것은 마치 복음이 사도행전 기록과 반대로, 즉 28장에서 시작하여 1장으로, 땅끝에서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의 순서로 전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끝에 가서, 예슈아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같이 똑 같은 방식으로 하늘에서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전략에서 정말 흥미로운 면 중 하나는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의식의 전환은 복음이 이들 ‘비 백인계’ 국가들로부터 이슬람과 아랍권으로 향하는 것일 겁니다. 그 우에는 단 하나의 목적지만이 남겠지요. 이스라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예슈아께서 그리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간의 복음 전파에는 목적, 목표, 그러니까 결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슈아의 재림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지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마 24:14),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슈아를 왕이자 메시아로 영접하면(마 23:37~39) 끝이 올 것입니다. 이 전략적 비전에는 다음의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1. 극동,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부흥
2. 아랍과 이슬람 세계의 복음화
3. 이스라엘 내 메시아를 믿는 남은 자들의 회복
4. 예슈아의 재림 그리고
5.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

우리가 이 ‘천국 복음’ 전략에 동조하기 위해서는, 믿는 유대인 공동체가 반드시 ‘제3세계’의 부흥과 이슬람 지역의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받아야 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슈아의 예루살렘으로의 재림에 대한 비전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경 수수께끼: 몇 명의 박사들이 동쪽에서 찾아와 새로 나신 메시아를 뵈려 했습니까?

답: 성경에는 숫자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유연성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 수 없는 숫자인 거요. (계 7:9) 박사들은 분명히 동쪽에서 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엄청난 무리가 왕이신 메시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보러 올 것입니다.

번역: 고병연